

‘이병복, 3막 3장’ 전 ‘연극계 대모’의 삶과 예술 세계



‘왕자 호동’, 무대의상, 삼베·종이, 1991.

전시 6월 30일까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760-4604

이병복은 한국 연극사의 산 증인이다. 1966년 연출가 김정옥과 극단 ‘자유’를 설립하고 창단 기념극 ‘따라지의 향연’을 시작으로 40여년간 연극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2006년 극단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피의 결혼’, ‘무엇이 되고 하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등 연극 200여 편을 제작했다. 1969년에는 서양화가인 남편 권옥연(1923~2011) 화백과 서울 명동에 ‘카페 페아뜨르’를 열고 6년간 극단 ‘자유’의 전용 무대로 운영하기도 했다. 직접 무대 장식과 의상을 제작해 온 그는 한국 연극계에 ‘무대의상’과 ‘무대미술’의 개념을 정립한 1세대 무대미술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연극과 함께해 온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전시 ‘이병복, 3막 3장’이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에서는 이병복이 걸어온 40년 연극 인생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극단 ‘자유’의 창단 기념극 ‘따라지의 향연’ 공연 안내지를 비롯해 포스터와 보도자료, 신문 스크랩, 대본, 의상 스케치, 공연 의상과 소품 등 그가 모은 자료를 통해 한국 연극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이병복의 개인사를 엿볼 수 있는 그림일기와 드로잉, 유학 시절 그린 자화상뿐 아니라 그가 1960년대부터 사용해 온 작업대도 전시된다.

연극계에서는 그를 무대미술가 1세대로 꼽지만 정작 그는 무대미술가라는 호칭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무대미술가라고 부르지 말아 주세요. 제대로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무대미술가’는 전문가에게나 어울리는 이름이지 나는 그냥 ‘뒷광대’인데.”

한국 찾은 ‘무담 룩셈부르크’ 소장품

전시 6월 23일까지
관람료 5천 원
문의 02-733-8945

유럽 현대미술관 ‘무담 룩셈부르크(Mudam Luxembourg)’의 소장품이 한국을 찾았다.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더 완벽한 날 : 무담 룩셈부르크 컬렉션’전은 무담 룩셈부르크의 소장품 550여 점 가운데 동시대 미술가 23명(2팀 포함)의 설치, 회화, 사진, 비디오 작업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룩셈부르크에서 2006년 개관한 무담 룩셈부르크는 회화, 드로잉, 조각, 사진, 디자인, 패션, 뉴미디어 등의 소장품과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의 최신 예술 경향을 반영하고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조명해 왔다.

전시에서는 무담의 소장품 중 에이아-리사 아틸라, 마이클 애쉬킨, 피에르 비스무스, 살비 블로셰, 가스톤 다마그·마누엘 오캄포, 장-루이 쉐러, 네드코 솔라코브, 볼프강 틸만스, 수-메 체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불가리아 작가 네드코 솔라코브는 대규모 설치 작업 ‘진실(지구는 평면이다, 세상은 평평하다)’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000년 터너상 수상 작가 볼프강 틸만스는 초상 사진 ‘레이첼 오번과 아들’에서 DJ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기도 한 레이첼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실험적 공간에서 만나는 젊은 작가 7인

전시 6월 16일까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735-8449

온통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전시장을 육중하고 기울어진 벽이 가로지른다. 이 기울어진 벽 주위로 젊은 작가들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작품을 펼쳐 보인다.

실험적인 태도로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내는 국내 신진작가들의 그룹전 ‘기울어진 각운들(The Song of Slant Rhymes)’이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남화연, 문영민, 윤향로, 이미연, 정은영, 차재민, 홍영인 등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젊은 작가 7인이 참여하고 큐레이터이자 비평가로 활동하는 김현진이 기획했다.

젊은 작가들이 꾸미는 전시에 걸맞게 전통적인 화이트 큐브에 기울어진 거대한 벽을 설치해 실험적인 공간을 만들어낸 점이 눈에 띈다. 이 공간에 작가들의 일곱 가지 색깔이 담긴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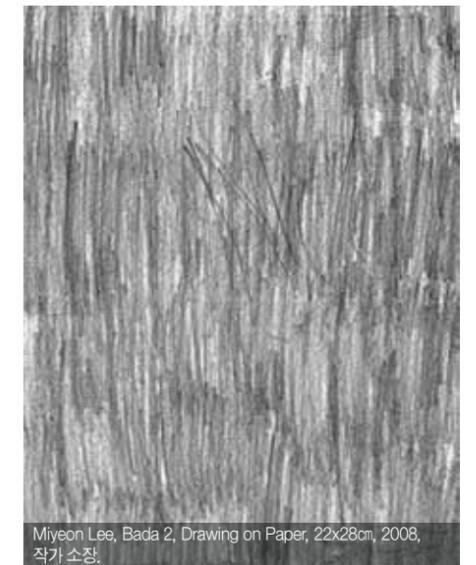
작가 그룹 ‘파트타임 스위트’의 이미연은 강이나 바다의 조난 현장을 촬영



교이치 쓰즈키, ‘행복한 희생양 : 구찌 2’, 컬러 사진, 180x230cm, 2002. From a series of 34 Photographs, Collection Mudam Luxembourg, ©photo : Kyoichi Tsuzuki.

준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일본의 교이치 쓰즈키는 ‘행복한 희생양’ 사진 시리즈를 통해 명품 의류와 액세서리를 수집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사적인 공간을 들여다본다.



Miyeon Lee, Bada 2, Drawing on Paper, 22x28cm, 2008, 작가 소장.

한 보도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먹지에 대고 베끼면서 일부분을 남기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재구성한 드로잉 시리즈를 기울어진 벽에 매달았다.

정은영은 1950년대 우리 대중문화 장르로 부상했던 여성극극을 기록하고 연구하면서 과거 국극 배우들의 사진 자료를 슬라이드로 보여준다.



아련한 추억이 있는 공간 '미나문방구'

경기도청 세정과 소속 공무원인 강미나(최강희)는 어느 날 사귀던 애인의 결혼 소식을 듣는다. 설상가상 체납세를 받으러 갔다가 되레 물벼락을 맞고 갑자기 끼어든 외제차와 접촉 사고까지 난다.

'육' 하는 성질 탓에 정직 2개월을 받은 미나는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주진모) 대신 '골칫덩어리'인 문방구를 처분하려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간다. 미나에게 문방구는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 이름 대신 '방구'라고 불리게 한, 그래서 늘 떠나고 싶었던 공간이다. 쉬어빠진 밥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아버지의 로션, 먼지가 잔뜩 쌓인 가게의 물건을 보면서 한층 혈압이 오를 무렵, 미나 앞에 '초딩 단골'들이 대거 등장한다.

"내가 겨우 이런 데서 주인 할 사람으로 보여?"라며 아이들을 문전박대하던 미나는 결국 하루라도 빨리 문방구를 팔려고 영업 전략을 바꿔 '라면 야식 판매', '1+1 초대박 세일', '추억의 게임 전수' 등을 통해 '초딩' 고객들을 끌어모은다.

아이들이 학원 차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문방구 앞 평상이 어느덧 추억의 게임을 함께하는 놀이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미나도 '방구'로만 남아

있던 어린 시절 추억을 하나 둘 꼬집어낸다.

마음마저 각박해진 주인공이 동심의 세계와 접하고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치유하게 된다는 내용은 비슷한 종류의 영화에서 보여준 전형적인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왜 내가 아빠 때문에 방구가 돼야 해"라고 울던 미나가 '자기만 빼고 모든 애를 다 좋아하는'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내용 자체도 뻔하지만 이를 그려가는 과정은 따뜻하다.

'라이벌' 관계인 미나문방구의 영업을 소심하게 방해하던

오성문방구 집 형제가 미나문방구 처분을 위

해 미나에게 협력하는 내용을 비

롯해 영화 곳곳에 배치된 에피

소드들은 문방구 구석구석에

있는 물건들처럼 자연스럽게 어

우러져 잔잔한 웃음과 감동을 선

사한다.



New Films

▼ 춤추는 숲

감독 강석필 출연 고창석, 정인기, 성미산마을 주민들 개봉일 5월 23일, 전체 관람가

1994년 젊은 부부들이 모여 공동육아 방식을 모색하며 만든 '성미산마을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며 발전해 학교와 식당, 찻집, 마을 극장 등을 세우고 생활을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가 됐다. 서울 마포구 성미산을 둘러싼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 1천여 명이 도심 속에 마을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이들에게 생명의 젓줄인 성미산은 삶의 터전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배움터이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영화는 성미산에서 열리는 축제로 시작된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들고 노래하며 흥을 낸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춤추는 숲이 이들을 감싼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에 수난이 닥치고 마을 사람들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다.



▼ 스타트렉 다크니스

감독 J.J. 에이브러햄 출연 크리스 파인, 재커리 퀴토, 베네딕트 컴버배치 개봉일 5월 30일, 12세 이상 관람가



1960년대 TV 시리즈로 시작한 '스타트렉'의 12번째 극장용 영화이자 일종의 프리퀄(전편)이었던 '스타트렉: 더 비기닝'의 속편이다. 엔터프라이즈호 함장 커크(크리스 파인)는 니비루 행성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스팩(재커리 퀴토)을 구하려고 규율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함장직을 박탈당한다. 비슷한 시각 런던 도심과 '스타플릿' 내부가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테러범은 스타플릿 최정에 대원이었던 존 해리슨(베네딕트 컴버배치). 커크는 존 해리슨을 사살하려는 임무와 함께 함장직에 복귀, 대원들과 함께 존 해리슨이 있는 크로노스 행성으로 향하지만 엔터프라이즈호의 결함으로 크로노스 행성 종족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다.

▼ 위대한 개츠비

감독 바즈 루어만 출연 리어나노 디캐프리오, 캐리 멀리건, 토비 맥과이어 개봉일 5월 16일, 15세 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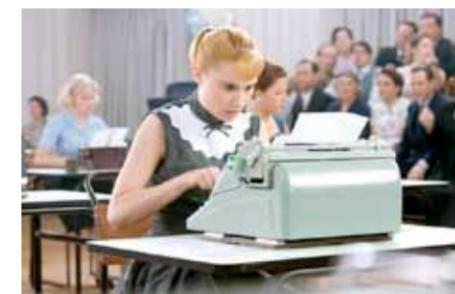
1920년대 예일대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뉴욕에 온 닉(토비 맥과이어)은 허름한 집을 얻는다. 그리고 사촌 데이지(캐리 멀리건)와 대학 동창이자 백만장자인 톰 뷰캐넌(조엘 에저튼) 부부가 사는 웨스트엔드의 대저택을 찾는다. 거기서 뉴욕에서 명성이 자자한 제이 개츠비(리어나노 디캐프리오)가 자신의 옆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닉은 매일같이 성대한 파티를 열지만 그 많은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파악되지 않는 개츠비의 존재가 미심쩍기만 하다. 개츠비는 닉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데이지를 초대해 달라고 부탁한다. 닉은 개츠비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수록 한 여자를 얻기 위해 불나방처럼 자신을 던지는 그의 순수한 욕망에 점점 매료된다. 하지만 개츠비의 욕망과 집착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



▼ 사랑은 타이핑 중!

감독 레지스 르왕사르 출연 데보라 프랑소와, 로망 뒤리스 개봉일 5월 22일, 15세 이상 관람가



노르망디 인근의 작은 마을에 사는 주인공 로즈(데보라 프랑소와)는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도시로 간다. 그녀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타자를 빨리 치는 것. 작은 보험사를 운영하는 루이(로망 뒤리스)의 사무실에 비서로 취직한다. 스포츠광에 승부욕이 강하지만 한 번도 1등을 해 본 적이 없는 루이는 로즈를 '스피드 타이핑' 대회에 내보내려 한다. 맹훈련을 하는 조건으로 로즈는 루이의 집에서 함께 지낸다. 루이는 걸으로는 늘 차갑고 까칠하지만, 알고 보면 정직하고 속 깊은 남자다. 로즈는 이런 믿음직한 루이를 좋아하게 된다. 루이 역시 예쁘게 활기차고 성깔도 있는 로즈에게 점점 끌리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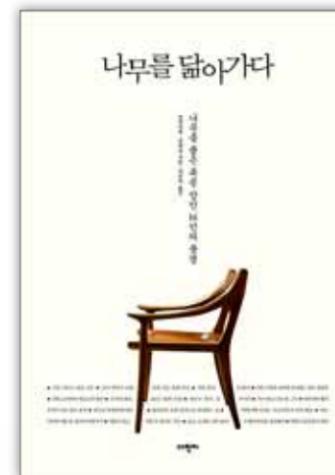
누구나 떠날 수 있다. 제주도 버스 여행

렌터카, 걷기, 자전거. 제주도 여행자가 이용하는 주된 이동 수단이다. 그런데 운전면허증이 없고, 자전거 타는 법을 모르며, 체력에도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문제는 없다. 저렴하고 재미있는 버스가 있기 때문이다.

두 달 동안 버스로 제주도를 살살이 훑은 저자는 섬을 그물처럼 연결하는 노선, 도착 시간을 지키는 정확성, 독특한 환승 시스템, 거리에 따른 할증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제주시를 비롯해 섬 동부, 서부, 남부를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모델 코스를 제안한다.

버스 여행자를 위한 먹을거리와 간식, 게스트하우스 정보 등도 실렸다.

안혜연 지음/중앙북스/276쪽/1만4천 원



나무에 생명 불어넣는 목공 장인들의 삶의 철학

저우중디 씨는 대만의 클래식 기타 전문 제작자다. 스페인의 기타 명장 호세 로마니요스의 제자인 그는 자신이 만든 기타에 일련번호가 아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자부심이 남다르다. 기타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은 140~200시간. 원목 채취를 위해 직접 산에 오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나무를 어루만지고 깎고 다듬는 것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대만의 목공 장인 16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 중 몇몇은 목공이 직업이지만 나머지는 취미로 시작한 목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른 장인이다. 평범한 회사원, 교사, 기업체 사장, 도예가 등 직업은 저마다 다르지만 나무에 감사하고 나무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누구 하나 다르지 않다.

투박한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들의 모습에서 깊은 삶의 철학이 느껴진다.

린다이랑·잔아란 지음, 이은미 옮김/다빈치/260쪽/2만2천 원

수많은 이야기와 지식이 서린 도쿄의 책방

‘독서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 도쿄에는 여전히 서점이 많다. 인터넷 시대에도 살아 남은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가게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 기분전환의 장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또 베스트셀러보다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 다른 곳에는 없는 책을 알리는 공간이다.

일부러 들러볼 만한 도쿄의 서점 22곳을 소개했다. 책과 맥주를 함께 파는 ‘비앤비(B&B)’, 요리와 음식에 관한 서적만 다루는 ‘쿡쿠프(Cookcoop)’, 여행 정보가 공유되는 ‘노마드(のまど)’와 ‘북246’,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요도(山陽堂)’ 등 흥미로운 곳이 가득하다. 서점 거리로 유명한 진보초(神保町), 아네센(谷根千)의 지도도 참고할 만하다.

현광사 MOOK 지음, 노경아 옮김/나무수/142쪽/1만1천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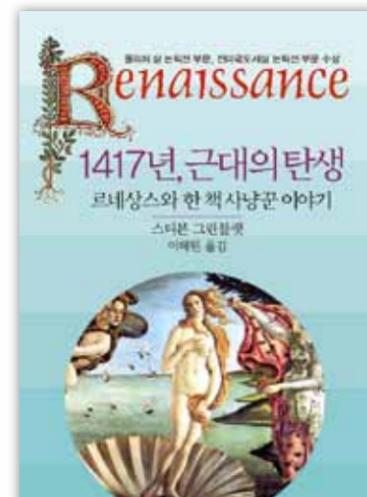
불온서적 한 권으로 태어난 근대

1417년 겨울 독일 남부의 한 수도원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30대 후반의 이 남자는 ‘책 사냥꾼(Book-hunter)’으로 유명한 포조 브라츨리니였다. 그가 먼지가 수북이 쌓인 수도원의 서가에서 찾아낸 필사본 한 권은 천년 이상 잊혀 있었던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였다.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는 신 중심의 중세 사회에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책이었다. ‘우주에는 창조자도 설계자도 없다’, ‘사후 세계는 없다’, ‘사물은 일탈의 결과로 생겨난다’, ‘일탈은 자유의지의 원천이다’ 등 당시로서는 불온한 사상과 주장이 책에 넘쳐났다.

브라츨리니에 의해 유럽 전역으로 유포된 이 책은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 빈치, 마키아벨리, 몽테뉴, 갈릴레오 등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와 철학자, 과학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저자는 중세의 어둠을 깬 르네상스의 탄생 과정을 새롭게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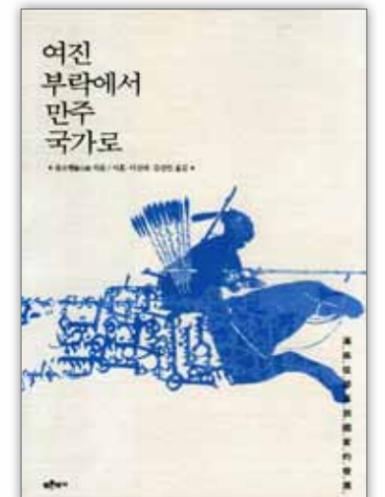
스티븐 그린블랫 지음, 이해원 옮김/까치/400쪽/2만 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만주족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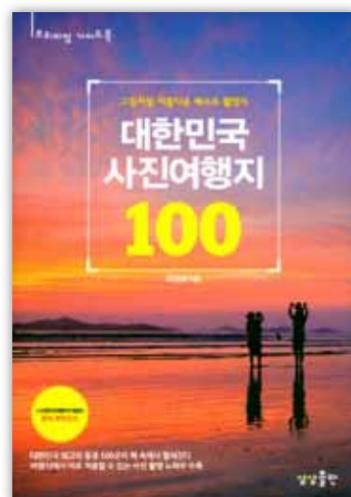
16세기 후반 누르하치에 의해 통일되기 직전까지 여진은 초기 국가 형태를 갖춘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부족이나 씨족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

국가를 수립하지 못한 채 떨어져 살았던 변방의 여진이 어떻게 조선과 명의 견제를 이겨내고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었을까? 더 나아가 여진을 구성했던 소수의 만주족이 거대한 중국을 정복한 이후 청 제국(1644~1912)으로 278년간 패권을 누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유소맹 중국사회과학원 교수가 쓴 이 책은 여진이 국가를 수립하기 전인 이른바 ‘부락시대’의 여진과 누르하치가 국가를 수립하고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 가는 시기의 여진을 연속선상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유소맹 지음, 이훈·이선애·김선민 옮김/푸른역사/584쪽/3만5천 원



사진에 담긴 대한민국의 그림 같은 풍경

여행과 사진은 궁합이 잘 맞는다. 집을 떠나 타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에는 낯선 풍경과 행복한 추억이 함께 깃들어 있다. 사진가이자 여행가인 저자가 사진으로 남기기 좋은 국내의 명소 100곳을 그려모았다. 남산 N서울타워, 수원 화성, 부산 해운대같이 익숙한 곳은 물론 인천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진도 조도군도처럼 생경한 곳도 포함됐다. 각각의 장소에는 촬영 요령, 여행 정보, 함께 둘러볼 곳, 먹을거리 등이 정리됐다.

그가 밝히는 여행사진 촬영의 비결은 ‘보는 것’이다.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특성을 파악한 뒤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바라보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충고한다.

유정열 지음/상상출판/480쪽/1만6천800원



도심서 만나는 여성 음악인 축제 '뮤즈 인시티'

세계 각국 여성 음악인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이색적인 도심 음악 페스티벌 '뮤즈 인시티'가 찾아온다.

'2013 뮤즈 인시티 페스티벌'에는 브라질 출신 보사노바 가수 리사 오노, 호주 싱어송라이터 렌카, 데미안 라이스의 옛 연인으로 유명한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리사 해니건 등이 무대에 오른다.

'보사노바의 전설' 키를로스 조빔과 '삼바 거장' 조앙 도나투와의 협업으로 이름을 알린 오노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세련된 기타 연주를 앞세워 보사노바 대중화에 기여했다. '아이 워시 유 러브(I Wish You Love)', '플라이 미 투 더 문(Fly Me to the Moon)' 등의 히트곡이 유명하다.

렌카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8'의 TV 광고 음악으로 삽입된 2집 '투(Two)' 수록곡 '에브리싱 앳 원스(Everything at Once)'로 국내 음악팬에게도 친숙한 가수다.

국내 아티스트로는 '홍대 여신'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한희정, 요조, 윤하 등이 출연한다.

일 정	6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잔디마당
티켓	13만2천 원
주최	엑세스이엔티
문의	02-3141-3488

윤하 단독 콘서트 '플리트비체'

최근 두 번째 미니 앨범 '저스트 리슨(Just Listen)'을 발표한 윤하가 서울과 부산에서 단독 콘서트 '플리트비체(Plitvice)'를 연다.

'플리트비체'는 미니 앨범에 담긴 신곡과 지난 공연에서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곡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미니 앨범 '저스트 리슨'에는 윤하가 작곡가로 참여한 타이틀곡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를 비롯해 나얼이 작사·작곡한 '아니아', 린이 작사한 '봄은 있었다', 윤하가 작사한 '파이어웍스(Fireworks)' 등이 수록됐다.

소속사 위얼라이브 관계자는 "이번 콘서트에 대한 윤하의 열의가 대단하다"며 "새 앨범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콘서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일 정	6월 21일 오후 7시/22-23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6월 29일 오후 7시 KBS부산홀
티켓	R석 8만8천 원, S석 7만7천 원
주최	위얼라이브
문의	1544-1555



'레인보우 아일랜드 2013 뮤직 & 캠핑'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의 캠핑과 국내외 아티스트가 참가하는 음악 페스티벌을 접목한 '레인보우 아일랜드 2013 뮤직 & 캠핑'이 열린다.

2박 3일간 열리는 행사에서는 둘째 날인 6월 8일 오후 7시 40분 영국 유명 록밴드 '트래비스(Travis)'를 만날 수 있다. 1995년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결성한 트래비스는 특유의 서정적인 노랫말과 멜로디로 '영국 록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브릿팝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섰다. 1집 '굿 필링(Good Feeling)'을 비롯한 지금까지의 음반 판매량은 1천만 장에 달한다.

국내 아티스트로는 넬, 데이브레이크, 페퍼톤스, 어반자카파, 유승우, 정재형, 클래지콰이, 타루 등이 출연한다.

일 정	6월 7-9일, 강원도 춘천 남이섬
티켓	1일권 8만8천 원, 3일권 14만3천 원
주최	브이유이엔티
문의	1588-1555



올해로 4년째 맞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

우리 곁을 떠난 지 17년이 된 김광석(1964~1996)의 옛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다시 부른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김광석 다시 부르기 2013'에서는 '영원한 청춘, 영원한 음악'을 주제로 김광석의 오랜 친구인 박학기, 히트곡 '사랑했지만'을 작곡한 한동준, 유리상자, 자전거탄풍경, 동물원, 에일리, 성시경 등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케이بل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4'에서 '제2의 김광석'이라는 극찬을 받은 신인 홍대광도 참가한다.

주최 측은 "김광석 다시 부르기"는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깨우는 무대"라며 "대중 가수들의 예술혼을 일깨우는 작업으로 김광석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의의를 전했다.

일 정	6월 15일 오후 3시·7시 30분, 경기도 고양 아람누리 아람극장
티켓	VIP석 8만8천 원, R석 7만7천 원, S석 6만6천 원, A석 5만5천 원
주최	팝인코리아
문의	02-3143-4823



아카펠라 그룹 '비보컬' 내한 공연

스페인 출신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비보컬(b Vocal)'이 3년 연속으로 내한 공연을 한다.

지난 1997년 결성한 비보컬은 2011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최우수 아카펠라 그룹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그동안 전 세계 2천6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사랑받았다.

2011년 첫 내한 공연을 펼친 이래 매년 한국을 찾은 이들은 올해는 서울뿐만 아니라 김해 문화의 전당(7일), 울산 현대 예술관(13일), 창녕 문화 예술회관(14일), 속초 문화 예술회관(17일) 등 전국 투어를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메들리,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 독(Hound Dog)' 등을 선보인다. 한국 팬을 위해 작곡한 '코리안 걸(Korean Girl)'도 들을 수 있다.

일 정	6월 5일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VIP석 11만 원, R석 8만8천 원, S석 6만6천 원, A석 4만4천 원, B석 3만3천 원
주최	에스피에이엔터테인먼트
문의	02-523-5391



네덜란드 출신 재즈 디바 로라 피지 내한 공연

1990년대를 풍미한 네덜란드 출신 재즈 가수 로라 피지가 내한 공연을 한다.

피지는 '렛 데어 비 러브(Let There Be Love)', '아이 러브 유 포 센티멘털 리즌(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등이 영화와 CF에 삽입돼 유명세를 탔고, 1999년 이후 수차례 내한했다.

지난 1997년 앨범 '비릿치드(Bewitched)'는 우리나라에서 재즈 음반으로는 이례적으로 8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그해 '가장 많이 팔린 재즈 앨범'으로 기록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이 러브 유 포 센티멘털 리즌', '드림 어 리틀 드림(Dream a Little Dream)' 등 귀에 익숙한 노래뿐 아니라 토니 벤틀, 프랭크 시나트라 등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선보인다.

색소포니스트 이인관, 피아니스트 지나, 로라 피지 밴드 드러머로 활동하는 김흥기 등 17명으로 이뤄진 재즈파크 빅밴드가 피지와 호흡을 맞춘다.

일 정	6월 29일 오후 5시, 경기도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
티켓	R석 7만7천 원, S석 6만6천 원, A석 5만5천 원, 휠체어석 3만3천 원
주최	구리아트홀
문의	031-550-8800

한일 합작 연극 '아시아 온천'

재일교포 극작가 정의신이 쓰고 국립극단 예술감독 손진책이 연출한 한일 합작 연극 '아시아 온천'이 관객을 찾아온다.

극은 아시아 어딘가에 덩그러니 솟아 있는 섬 '어제도'에 이방인 형제가 오면서 시작된다. 유황 냄새를 맡고 입도한 '가케루'와 '아유무'는 이곳 땅을 사들여 온천을 개발하고 호텔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가문 대대로 이어온 섬을 지키려는 고집스러운 영감 '대지'에게 이들의 존재는 눈엣가시다. 배척해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데 대지와 이들 형제 간 긴장이 고조되던 어느 날 '아유무'와 대

지의 딸 '종달이' 사이에는 남몰래 사랑이 싹튼다.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모진 사랑'이다. 결국 마을 사람들과의 몸싸움 중에 아유무는 죽고, 이에 종달이도 제 몸에 칼을 꽂으면서 비극으로 치닫는다.

일정 6월 11~16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2시/6시 30분 · 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티켓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580-1300



영국 소극장 뮤지컬 '투모로우 모닝'

영국 소극장 뮤지컬 '투모로우 모닝(Tomorrow Morning)'이 한국에서 개막한다. 2006년 80석 규모의 프린지 극장인 런던 뉴엔드 씨어터를 시작으로 미국 뉴욕-시카고, 일본 도쿄 등지에서 공연됐다.

극은 이혼을 목전에 둔 10년차 부부와 결혼식 전날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는 예비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다.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인 결혼을 앞둔 젊은이의 임신-육아-미래 설계 등에 대한 고민, 청춘의 설렘이 가시고 권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중년의 일상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이혼을 하루 앞둔 40대 광고 카피라이터 '잭' 역은 이 작품으로 4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오는 배우 박상면을 비롯해 박선우, 이석준이 번갈아 맡는다. 결혼을 앞둔 패션 잡지 초보 에디터 '캐트' 역에는 배우 김슬기와 뮤지컬 배우 임강희가 더블 캐스팅 됐다.

이밖에 송용진-정상윤-이창용이 컷과 결혼을 약속한 30대 영화감독 지망생 '존' 역으로, 최나래가 잭의 아내이자 성공한 패션지 편집장인 '캐서린' 역으로 분한다.

일정 6월 1일~9월 1일, 평일 오후 8시 · 토 오후 4시/7시 · 일 오후 3시/6시, 서울 대치동 KT&G 상상아트홀
티켓 R석 6만5천 원, S석 5만5천 원
문의 1544-1555

'바이올린 여제' 무터와 14인의 '무터 키즈' 내한

안네 소피 무터가 젊은 연주자 14명을 이끌고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선다. 무터는 1976년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에서의 데뷔 무대와 이듬해 이어진 헤르베르트 폰 카리안 지휘의 베를린 필 협연 무대를 통해 단번에 전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다. 카리안이 극찬한 이 '바이올린 분더킨트(신동)'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이올린 여제'로 30여년간 군림해 오고 있다.

빼곡한 연주와 음반 녹음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음악계와 사회에 기여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더 존경받는다. 자선 연주회는 물론 사회 문제나 국제 의료 문제 등까지 관심을 쏟는다.

이 같은 활동에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그는 1997년 재능 있는 젊은 연주자를 발굴하고 후원하기 위한 무터 재단을 설립했는데, 이곳을 통해 스타 첼리스트 대니얼 윌러쇼트, 더블베이스리스트 로만 파트콜로 등이 탄생했다.

이번 한국 무대에 서는 젊은 연주자 14명도 이 재단 소속이다. 특히 최예은을 비롯해 첼리스트 김두민, 비올리스트 이화은 등 한국인 연주자 3명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들은 이번 공연에서 바이올린과 더블베이스 듀오를 위한 세바스찬 카리어의 '벨소리',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 비발디의 '사계' 등을 들려준다.

'고음악 거장'이 들려주는 모차르트 레퀴엠

2006년 첫 내한 공연에서 바흐 'b단조 미사'를 선보이며 국내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벨기에 출신 고(古)음악 거장 필립 헤레베헤가 7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고음악은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파 등 옛 음악을 그 시대의 악기와 연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으로 '정격음악'이나 '원전연주'로도 불린다.

벨기에의 작은 도시 겐트에서 태어나 피아노와 의학을 공부하던 헤레베헤는 1970년 원전 연주 전문 앙상블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를 창단하며 본격적인 고음악 운동에 뛰어 들었다. 헤레베헤의 연주는 형식 면에서는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작품이 가진 서정성과 영적인 성격을 탁월하게 드러낸다는 찬사를 받았다.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레퍼토리는 바흐에만 머물지 않고 바흐 이전부터 20세기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그는 이 폭넓은 레퍼토리를 최상의 연주로 들려주기 위해 여러 단체를 직접 창단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 합창단과 더불어 '상젤리제 오케스트라'까지 대동한다. 이들은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교향곡 '주피터'를 연주한다. 특히 '레퀴엠'은 그의 발탁으로 유럽 무대에 데뷔한 '고음악계 디바' 소프라노 임선혜가 독창자로 가세해 더 눈길을 끈다.

일정 6월 1일 오후 7시·2일 오후 5시,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
티켓 VIP석 15만 원, R석 13만 원, S석 10만 원, A석 7만 원, B석 4만 원
문의 02-2005-0114

